道通眞境의 實相

曺泰龍*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道通의 의미와 이해
Ⅲ. 道通의 기본 요소
1. 體系의 正立
2. 一心
3. 誠心
4. 믿음
Ⅳ. 完成人으로서의 道通君子
1. 神仙
2. 道德君子
Ⅴ. 眞境世界의 實相과 그 理解
Ⅵ. 맺음말

DAEJIN SINCE 1996

Ⅰ. 들어가는 말

종지의 道通眞境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두가지가 있다. 道通眞境을 한 숙어로 보는 것과 도통과 진경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다. 한 숙어로 볼때에는 진경을 도통한다 혹은 도를 통하면 진경이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도통과 진경을 분리해서는 도통을 하는 것과 진경을 얻는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도를 통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으로 진경세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道通眞境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열어가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도를 닦아 이르는 경지를 도통이라 한다. 수도의 목적도 도통이고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나 遠近이 없고 바른대로 닦느냐에 따라 유불선 신명들이 판가름하게 된다. 수도행위 전부분이 그 판가름의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신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모셨는가, 布德은 얼마만큼 했는가, 德性을 기른 정도와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심, 일심, 믿음의 정도에까지 다양하다.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평가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마음을 갈고 다듬은 정도인 일심, 성심, 믿음의 상태가 도통을 위한 큰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상제께서도 오직 마음을 본다고 하셨고 마음을 닦은대로 열어주리라 하신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대순진리에서만이 아니라 유불선을 통틀어서도 마음공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만큼 마음을 크고 밝고 깨끗하게 닦았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으로 가르기도 했다. 따라서 유학자들은 선비된자, 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라고 했다. 마음과 함께 도통에 관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체계의 정립이다.

체계는 곧 宗統의 순서를 확고히 함이다. 도통줄을 가진 대두목이 도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연원체계를 확고히 인지하고 그 체계에 따른 수도를 해야 사도(邪道)에 빠지지 않고 도를 정각할 수 있다.

체계에 따른 수도로써 개개인들이 도통이 되고 도통군자, 신선이 되는 것이라면 지상에 선경이 마련되는 세상은 道通眞境이다. 이를 상제께서는 후천선경(後天仙境)으로 달리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천하가 和平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진경세계이다.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천지공사에 따른 도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천의 상극에 따른 모든 겁기를 제거하고 상생의 도로써 祥瑞가 녹는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도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고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완성인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은 어떠한지 고찰하기로 한다.

Ⅱ. 도통의 의미와 이해

도를 닦은 자는 그 精魂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1]고 말씀하신 것 처럼 도를 닦으면 그 결과로써 도통을 하게 된다. 즉 수도의 목적은 도통에 있는 것이다. 수도란 인간 본성의 함양이며 신과의 조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에 내재한 도덕적 윤리성을 닦아 나감으로써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고 우주와 합일되는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삼강오륜과 같은 次第道德을 준수하며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大人工夫를 통해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고 한 것처럼 지고무상한 大道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행한 수도의 귀착지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에서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2]고 하셨다. 이 말씀은 마음을 깨끗이 닦아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 즉 청정무구, 무욕청정(無慾淸淨)한 상태를 도통이라고 함을 뜻한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고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 마음이다. 마음을 닦은대로 운수가 열리고 도통을 하게 되는 것이니 오직 마음을 바로하고 한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일이다.

또 류찬명은 도통이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다.[3]

도통을 하게 되면 삼라만상의 곡진 이해에 무소부지(無所不知)하고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 무소불능(無所不能)하며 무소부재(無所不在)하게 된다.

또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하고 중찰인사(中察人事)케 되어 우주의 모든 이치와 질서를 깨닫게 되고 인간끼리도 서로 통하여 속일 수 없게 된다.

---

1) 교법 2장 22절
2) 대순지침, 38쪽
3) 교운 1장 47절

수도의 목적인 도통은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 과거 공자는 72명만 도통시켰고 석가는 5백명을 통케 했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원을 품었다. 뿐만 아니라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게 된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응해 있는 겁기를 제거함으로써 상제께서는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를 내게 되며 거기에는 여인들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도를 통하게 된다.

그리고 각 성의 선령신이 한 명씩 天地公庭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어느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통기운이 내리게 된다.

이때에는 도통을 상제께서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신명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한다. 도통을 줘고 있는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보낸다고 하셨다.

도통은 先後의 차등이 없고 遠近이 없으며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있는데 만약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도술 배우기를 원하나 미리 가르쳐주면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가게 된다.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수도에 매진하면 자연히 열리는 것이다.

Ⅲ. 도통의 기본 요소

1. 체계의 正立

도는 경위이며 이치이고 진리며 법이라고 한다. 종교성을 띠고 있는 대순진리회에서 도가 도일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체계가 바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도의 과정에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립을 확고히 해야 한다. 신앙의 체계는 곧 종통의 전수이다.

구천상제의 천부의 종통 계승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께서는 만주에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시에 득도하셨다.

이는 태을주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이며 전경에 나오는 12월 26일 재생신(再生身)은 12월 4일로서 1년 運回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생을 뜻하심이다. 대순진리회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내려 왔다. 따라서 이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수도 없는 것이다.

연원에 의하여 도통줄이 나오게 되며 연원자가 곧 대두목이다.

상제께서는 본댁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敎旨)를 찾아 옥새(玉璽)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베를 매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시며 시루산을 오르시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4]고 외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儒佛仙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말씀하셨다.[5]

도통줄은 眞法이 있는 곳이다. 난법에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은 의와 불의, 악과 선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또한 사도(邪道)에 빠지지 않고 정도(正道)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도통줄, 대두목을 바로 찾아 수도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2. 일 심(一心)

전경 행록 3장 44절에 의하면 "마음은 귀신의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라고 했다.

인간의 마음은 심령(心靈)인고로 심과 영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영은 곧 신령(神靈)이니 신인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하고 그 결과로써 神人相合에 의한 도통과 道通眞境의 세계를 이룰수

4) 예시 18절
5) 교운 1장 41절

있는 것이다. 수도에 있어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매우 많다.

상제께서는 진심견수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고 하시어 참된 마음을 가지라고도 하셨고 또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고도 하셨으며 공사를 행하실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르실때에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正心을 명하시고 혹 放心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도 하셨다.

구체적인 많은 예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짐이 수도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통을 이루는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함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다. 많은 마음가짐 중에서도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일심」에 대한 말씀은 금과옥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음이 순일(純一)한 경지에 이르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마음(一心)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곧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천성과 본성을 찾은 상태이다.

일심이 되면은 어떠한 일에도 동요되지 않고 완전한 안심(安心), 안신(安身)의 경지에 이른다.

> 상제께서 최 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 낙안(林樂安)은 죽고 최 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하셨도다.[6]

일심으로 인하여 최익현이 산 것은 일심이 곧 수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흔히 「죽기 살기로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 곧 사는 길이 있음을 말해준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적도 죽이고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유리한 고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저혼자 살기를 바라면서 피신을 하게 되면 쫓겨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고 패잔병이 되어 대오가 분열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심을 가진 자는 생사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 여기에 대한 비유로써 상

6) 교법 3장 20절

제께서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일심을 가지게 되면 무궁무진한 복록을 입게 됨을 다음의 말씀으로써 밝혀 주셨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7]

사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된다'라거나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들이 있다. 이는 막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정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겠다는 신념으로써 매진하게 되면 목표로 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모든 일을 이룰수 있는 것이니 다음의 구절을 보면 성공의 길을 알 수 있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8]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라. 血食千秋 道德君子가 배를 몰고 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君子神이 千秋血食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一心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一心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9]

윗 인용구절들을 통해 볼 때 일심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무궁한 수명과 복록을 누리게 되며 만사를 이룰 수 있고 신인조화로써 君子神이 되어 만인의 추앙을 받게도 된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를수 있듯이 일심은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인간의 양심이기 때문에 인간 본래의 성정을 지켜 나간다면 도통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

7) 교법 2장 4절
8) 교법 2장 5절
9) 예시 50절

3. 성 심

성현으로 추존을 받은 사람들은 誠을 일생동안 갚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하였고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중용 제 20장에서는 "誠은 하늘의 도요 誠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10]고 했다.

성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능히 그 타고난 성품을 극진히 할수 있다.

성은 또 남에 의하여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스스로 이루워 놓은 개개인의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지극한 성은 진리의 바탕이 되고 불성(不誠)은 역리(逆理)이므로 자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다.

「張子全書」의 성명편(誠明篇)에는 "하늘이 장구하여도 그치지 않는 까닭으로서의 도는 곧 이른바 성이다. 어진 사람과 효자가 하늘을 섬기는 까닭은 그 몸을 성실히 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인과 효하기를 그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성실하므로써 物이 존재하며 그래서 종시(終始)가 있다. 위실(僞實)하면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종시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실하지 않으면 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11]라고 말하였다.

진리에 합당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일에 극진히 할 수 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길러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길러내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운 최치원은 "誠이란 하늘의 道요, 誠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물건이 이루어짐에 어긋남이 없고, 물건을 생성함에 측량할 수도 없음은 하늘이 誠으로 하기 때문이요, 그 존재한 바에 속임이 없고, 그 행하는 바도 허망하지 않음은 사람이 誠으로 하기 때문이다. 눈을 밝히고 보아도 볼 수

10)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11) 「張子全書」 正蒙, 誠明篇, "天所以長久不已之道 乃所謂誠 仁人孝子所以事天 誠身不過 不已於仁孝而已 故君子誠之爲貴," "誠有是物 則有終有始僞實不有 何終始之有 故曰不誠無物."

없고, 귀를 귀울여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모이면 나타나고 흩어지면 숨어, 물건이 일체로 되어 빠뜨릴 수 없고, 여긴지 저긴지 측량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誠이 하늘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성인은 그 성을 순수하게 하고, 현인은 그 성을 보존하며 범인은 그 성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성인은 타고난 기질이 맑고 순수하여 천리(天理)와 일치되므로 仁이면 표리(表裏)가 모두 仁하여 털끝만큼도 어질지 않음이 없고, 義이면 표리가 모두 義인바 털끝만큼도 의롭지 않음이 없다.[12]"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지극히 성실한 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이룰뿐 아니라 물건도 이루어 주는 것이며, 오직 자기의 본성을 다할 뿐 아니라 물건의 본성도 다하도록 하는 것인 바, 그 쉬지 않음으로부터 박후(博厚)하고 고명한 데까지 이르고, 그 외형으로부터 동정과 변화에까지 이르면 국가도 다스릴 수 있고, 천(賤)하게도 또는 평화롭게도 만들 수 있으며, 천지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천지를 가르킴의 화육에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도가 큼을 한 말로써 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誠뿐이라 하겠다"[13]라고 하였다.

전경에서도 誠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다.

>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 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14]

머슴이 선술을 얻기 위하여 10년이라는 세월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농사를 지었고 심지어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 물위에 뛰어내리라는 스승의 분

---

12) 崔致遠 著.金喆熙 譯, 誠,「經學隊杖」(서울, 을유문화사), p. 47.

13) 위의 책, pp. 48-49.
"至誠之道 非惟成己 且以成物 非惟盡己之性 且以盡物之性 自其不息而極於博厚高明 自其形者而極於動靜變化 則國家可治而天下可乎也 天地可參而化育可贊也 聖道之大 可以一言而盡者 曰誠而已 ."

14) 예시 83절.

부를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도를 통하여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후천선경은 도통을 통한 천지가 성공하는 시대이다. 만물이 가을 바람에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되기도 하듯이 참된자는 큰 열매를 맺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게 된다. 의로운 사람, 삶을 구하는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은 머슴처럼 힘써 닦아야 한다.

다음으로 49일동안 정성을 드리는 아낙네의 사연을 살펴보기로 하자.

>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는가를 잘 상의하라」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산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 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15]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16]이라고 밝혔지만 아낙네는 사십구일을 정하여 정성을 드리다가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을 품은 것이다. 그러나 상제로부터 교화를 받고는 마음을 뉘우치고 끝까지 정성을 드려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고 그 증거로 오색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至誠은 절대

15) 행록 1장 29절
16) 대순진리회 요람 16쪽

완전한 것으로서 쉼이 없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극진히 함으로써 위로는 하늘에까지 도달하여 천심과 인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아낙네 뿐만 아니라 김형렬은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해 오다가 8월 추석절을 맞아 쇠솥을 공양코자 하였다. 오직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계도구 중 가장 중요한 솥을 팔아서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다. 이렇듯 성심은 오직 상제를 위하는 마음이 밥먹듯 숨쉬듯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쉬어서도 안된다.

「대학」에 보면 「誠意」라는 말이 있는데 意라는 것은 마음의 발동(發動)이며 동기(動機)이다. 수행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하여야 하고 마음은 진실함을 유지해야 하고 매사에 성의를 가지고 전진했을 때 도통이 되는 것이다. 놋쇠 그릇도 닦을수록 빛나듯이 道도 닦을수록 환해지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지성으로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17]고 말씀하셨다.

또 최익현의 거사로써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그 혈성(血誠)의 감동에 인함이었다.

혈성은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다. 세상사에서도 성심이 있고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듯이 수도생활도 성경신에 지극한 사람, 혈성을 지녀 천지신명을 감동시켰을 때 공부의 완성을 보게 된다.

4. 믿 음

누구나 한 번 쯤은 신앙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과 같아서 꼭 가져야 할 것이다. 신앙이 생기려면 믿음을 가지려는 강한 의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녀야 할 자세로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17) 권지 2장 35절

종교학에서 쓰는 용어로 「신앙」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누군가를 믿고 우러러 공경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곧 믿음의 요소란 무엇인가? 사실 이 과제는 대순진리를 신앙하는데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체득될 수 있는 것이지 다분히 교리적인 색채나 관념론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요소들이다. 신앙의 개념화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까지 함께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속에서 상제께서는 천상에서 인간세상을 대순하시고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를 설파하셨으며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 공사가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발휘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란 의심없는 마음을 일컫는다. 즉 상제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여합부절(如合符節)이니라」[18]고 하시고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어라」[19]고 하셨다.

특히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이제까지 믿었던 것과 같이 변함없이 믿을 것을 명심시켰는데 김 자현에게는 6월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고 모든 종도를 꿇어 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하시기에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니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였다.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구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종도와 상제의 대화를 보면 종도들이 상제에 대해 믿는다고

18) 교법 3장 3절
19) 교법 2장 2절

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힘들고 많은 자기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믿는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빚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20]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 훈장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었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범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 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 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 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 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 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이르도다.[21]

류훈장의 신분으로 최풍헌이라고 하는 머슴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또 그가 죽자 지리산으로 운상하여 달라는 유언에 따라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

20) 예시 61 절.
21) 교법 3장 17절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의 모든 운명을 최풍헌에게 믿고 맡겼기 때문에 임진란을 무사히 넘길수 있었다. 만약 그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거나 신분의 차이에 대한 우월성이 있었으면 그의 말을 듣기 힘들었을 것이고 최풍헌의 죽음에 회의를 느꼈다면 지리산 자락으로 피난하지 못했을 것이다.

류훈장은 한 번 정한 마음을 변치 않았고 그 결과로 생명을 보전 받았다. 상제께서 최풍헌의 고사를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종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다. 화천하시기전 종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고성을 다진것도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실 것을 믿으라는 데 있으며 상제께서 잠시 세상을 떠나 있더라도 마음을 변치 말고 수도를 열심히 하라는데 있다.

도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 今不聞 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22]하셨듯이 그 믿음을 자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백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23]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한 마음을 정하고 지성으로 나아갈 때 도통을 이룬다.

---

22) 교운 2장 18절
23) 대순진리회 요람 17쪽

Ⅳ. 完成人으로서의 道通君子

1. 신 선(神仙)

신선이란 관념은 속된 세상 즉 이 세상을 혼탁한 세상이라 보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 은거하면서 불로장생하는 법을 닦아서 세상사 모든 번민을 떨쳐 버리고 사는 이상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신선의 「仙」은 「僊」에서 유래한 것으로 「僊」의 본래의미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하늘로 날아 올라간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지니게 되며 구름속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 구름 속의 인간, 명리에 젖지 않는 정신 그것만 해도 신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간의 조화를 우주 만물의 생명현상의 본질적 요소라고 파악하여 인간생명의 영속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고대인들의 생명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우주 만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기 위해서 道를 중요한 매개로 삼고 있다.

도의 세계에서도 특히 정신세계와 氣의 세계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표방하고 있다. 氣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물질인데 인간이 우주의 정기를 몸에 받아 들여 일체가 된다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혼연 일체가 되었을 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만물일체적 관념이라 하겠다.

도를 닦아서 신통자재하게 된 사람을 선인(仙人)이라고도 했는데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신선이란 성명(性命)의 진(眞)을 보존하여 그밖에 유구(流求)하는 자이다. 편안히 하여 뜻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여 사생(死生)의 영역을 같이 하여서 흉중에 두려워하고 근심함이 없다"고 하였다. 生老病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신선은 정신적인 위안처를 제공했고 그곳에 침잠하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山水自然과 동화되어 사는 신선은 신비로운 자연인이면서도 일상생활속에서 가끔 발견되는 일면이 있었으니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옛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이상적 인간으로 여겨왔다.

도가에서 주장하는 仙에는 다섯가지의 등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나눌 것 같으면 음신(陰神)과 양신(陽神)의 두 가지가 있다. 귀선(鬼仙)이라고 하는 것은 음령(陰靈)에 해당하고 천선(天仙), 신선(神仙), 지선(地仙), 인선(人仙)의 4선은 양신의 종류이다.

천선의 법력은 끝이 없고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천선의 몸은 하늘의 청허(淸虛)함과 같으며 그 합덕(合德)은 하늘의 무극(無極)의 상태와 같다. 억만겁을 지나도 불괴의 금신(金身)이 되는데 금선(金仙) 또는 대라금선(大羅金仙)으로 별칭된다.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쉬면서 기를 단련하여 神으로 변화시키면 神과 합하게 되는데 이를 신선이라 한다. 호흡을 하지 않고 기(炁)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물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므로 수선(水仙)이라고도 한다.

인선의 단계에서 한단계 높은 수련을 하게 되면 음근(陰根)을 제거하여 욕계(欲界)를 떠난다. 기가 없으면 생사는 절단되므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은 이미 없는 것이다. 선행(仙行)은 육지에서 하게 되므로 땅을 떠나서는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지선(地仙)이라 한다. 수명은 한없이 늘어나 인선보다 높다. 보기에 따라서는 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인선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양정을 얻어 체내에 지킴으로써 장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체내에 모인 진기(眞炁)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보통사람들이 겪는 생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귀선은 정좌하여 조용한 마음으로 정중(靜中)에서 靜을 찾아 완공적멸(頑空寂滅)의 세계로 들어가나 아직은 멸진정(滅盡定)에 이르지 못하고 강정(强定)의 음신(陰神)이 된다.

음신이 한 번 나가면 영귀(靈鬼)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선은 각기 수련과 경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다섯종류의 선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살면서 명리(名利)를 다투지 않고 번거롭고 호화스러운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에 뜻을 두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신선이라고도 한다.

다만 그 수행의 정도와 경지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의 관념으로는 호흡을 통한 내단수련(內丹修鍊) 및 단약복용(丹藥服用)의 외단(外丹), 피곡(避穀; 곡식을 피하고 솔잎 등을 먹음), 방중술(房中術 ; 남녀교합으로 採精하는 回春術), 부주(符呪), 송경(誦經), 신괴기방(神怪奇方 ; 둔갑술, 呼風喚雨 등의 변화술), 도인법(導引法), 시해법(尸解法)[24], 천문(天文), 지리(地理), 도참(圖讖), 점복(占卜)[25] 등에 걸쳐 일정한 수련과 깨달음 그리고 신묘한 술법을 지닌 자를 신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정신개벽, 인간개조를 통한 지상신선 실현에 있는데 전경에 등장하는 신선으로 여동빈이 있다.

---

24) 전경 공사 3장 14, 15절에는 진묵대사가 시해법을 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전주 봉서산(鳳棲山) 밑에 계실 때 종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시니라. 김 봉곡(金鳳谷)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震默)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寺院洞)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자를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 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후에 진묵이 봉곡을 찾아가니 봉곡이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묵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대발 하는도다. 진묵은 내가 외울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달아 한현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 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 더 시기하였도다.

그 후에 진묵이 상좌에게 "내가 八일을 한정하고 시해(尸解)로서 인도국에 가서 범서와 불법을 더 익혀 올 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고 입적(入寂)하니라, 봉곡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묵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중임을 알리니라. 봉곡이 그럼 방에 찾을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방문을 열려는 것을 상좌가 말렸으나 억지로 방문을 열었도다. 봉곡은 진묵의 상좌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아 놓고 화장하니라.

사좌가 울면서 말렸으되 봉곡은 도리어 꾸짖으며 살 한점도 남기지 않고 태우느니라. 진묵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자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울기에 봉곡이 "저것은 요귀(妖鬼)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진묵이 소리쳐 말하기를 "네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하고 동양의 모든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 갔도다.

25) 車柱環, 한국의 도교사상, 동화출판공사, 1984, pp.22-33.

그는 태어날 때 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어머니가 능금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을 때 기이한 향기가 길에 가득하고 하늘의 음악이 공중에서 들려오고 한 마리 흰 기러기가 하늘로부터 품속으로 드는 순간에 낳았으므로 소선(紹先)이라 이름하였다.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어 모든 고서와 백가의 글을 빠뜨림 없이 읽었으나 두 번의 진사시험에서 낙방하여 스승 운방선생을 만났다. 이때가 64세의 나이였다. 그는 스승으로 부터 절구 한 수를 읊으라는 분부를 받고서 붓을 들었다.

"내 본디 유가의 집에 나서 태평세를 만났더니(生自儒家遇太平)
매달린 갓끈은 무겁고 베옷은 가벼운데(懸纓重滯布衣輕)
누가 능히 세상명리를 다툴 줄 아는가(誰能世上爭名利)
이 몸은 옥황을 받들어 상청에 돌아가리라(臣事玉皇歸上淸)

스승으로부터 심학을 전수받고 구전금액대환단법(九轉金液大還丹法)을 전수받았다. 이때 운방 선생은 '대저 도에는 음양을 가르고 합치는 묘가 있다. 음을 지킨 즉 다만 백(魄)이요 양을 지킨 즉 다만 혼(魂)이니 만약에 혼을 모으고 백을 합쳐서 음양이 서로 교합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른바 진인(眞人)이다.

또 지혜는 으슥한 데서 나타나고 지극히 고요함은 신(神)이 편안한데서 나오니 신이 이미 혼합됐으니 어찌 진인에 합쳐지지 않았겠는가. 금형(金形)과 옥질(玉質)은 본래 정성(精誠)에서 나오니 대단(大丹)은 이미 이루어졌고 몸은 곧 가벼이 나른다"고 했다. 여동빈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련을 하여 신선이 되었다.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26]

26) 예시 61절.

전경에는 또다른 신선과 신선술을 익히는 탕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상제께서는 자신의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하셨다.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27]

윗 구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신선은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선학을 배우겠다는 뜻을 세워야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즉, 개심(改心)한 것이다. 그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것은 종전의 자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며 희망과 평안의 세계로 진입함을 뜻한다.

그것은 바로 선학을 배우는 데서 출발하여 신선이 되는 길이다. 그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성심성의껏 도장을 마련하고 뜻있는 사람을 모았다. 과거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탕자라는 것을 알고 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뜻이 있고 인연이 있는 자는 탕자와 같이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선학을 배우게 된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신선과 연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제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상제께서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신선을 말로만 듣고 보지는 못했는데 이후로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7) 교법 3장 16절

2. 道德君子

상제께서는 화천하시기 전해인 섣달 어느날 백지에 이십 사 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 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남조선 뱃길에 있어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는데 그 군자신이 천추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일심에 있다고 하셨다.

도덕군자란 도덕을 갖춘 현인일 뿐만 아니라 일심을 가진 사람이다. 군자만이 도덕으로써 세상사람을 교화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덕을 지녀야 하고 덕으로써 억조창생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웅을 겸비한 도덕군자만이 후천 창생을 덕으로써 그리고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궁을가(弓乙歌)에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는 말은 상제의 일을 이름이요 그 도통군자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게 된다. 허미수가 중수한 成川 降仙樓는 녹줄이 붙어 있고 금강산 일만이천 봉에는 겁기가 붙어 있는데 상제께서는 그 겁기를 제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를 내게 된다. 특히 상제게서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도통을 열어 주는데 상재(上才)는 칠일이고 중재(中才)는 14일이고 하재(下才)는 21일이면 成道하게 된다, 상등은 만사를 임의대로 행하게 되며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用事를 뜻대로 못하게 된다.

V. 眞境世界의 實相과 그 理解

상제께서는 우주를 시간적 관념으로 구분했을 때 앞으로 오는 시대를 선천(先天)의 상대적인 후천(後天)이라고 하셨다. 선천이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이 맺힌 세계라면 후천은 선으로 살아가는 상생의 세계인 것이다. 천지가 성공하는 때인 후천에 대해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 '낙원'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의 종지에서 나타나는 道通眞境은

천지공사의 궁극적 목표이자 상제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표상하는 후천의 지상낙원의 세계이다.

천지공사의 모든 원리가 도수에 따라 도달하는 마지막 귀착지이며 상제님과 천지신명과 인간들이 합일하여 창건할 위대한 세상이다.

度數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어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짜놓으셨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게 되니라"[28]하셨듯이 도수에 맞추어 새로 열리는 사회현상을 새기틀이라고 하셨다. 후천세상에 열리는 진경의 모습은 과거 인류가 꿈꾸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선다.

그것은 SF에서나 등장하는 가상 현실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이고 실제 생활에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가 실현되기 때문에 지상천국(地上天國建設), 오만년 무량선경(五萬年無量仙境), 용화세계(龍華世界), 청화세계(淸化世界), 청명세계(淸明世界), 화순세계(和順世界)라고도 표현한다.

지상천국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는 인간의 본성은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있었는데 서양인이 황금시대(Golden-Age)의 이상향 아르카디아(Arcadia)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나 동양인이 동방을 낙원으로 동경하여 東土樂園을 신앙해 온 것이[29] 그것이다.

자연 경관을 마주하면 선경을 연상하고 그 선경을 통하여 선계(仙界), 선향(仙鄕)을 동경하였다. 마치 武夷九曲의 별유천지 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과 같은 세계이다.

그러나 신선이 되고 선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곳은 깊은 계곡이나 산속과 같은 은둔의 곳이 아니라 현세에서 복록과 수명을 누리고 인간 스스로 수도를 하고 노력을 하여 만들어가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천지가 사람을 내서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지가 쓸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인생이라 하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천지공사에 참여해서 다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28) 예시 16절

29)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p. 17.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는 것이 후천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이 갖고 있는 人尊思想의 묘미라 하겠다. 선천에서는 비록 육신을 지닌 채 현실에서 구도를 하지만 새로운 시공성과 새로운 구조로 창건될 후천 5만년 선경세계는 선천적 의미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하는 세계이다.

천지개조 공사를 통하여 인간을 구속하던 모든 원울과 탐음을 없애고 천지인 삼계에 걸쳐있는 모든 원한을 풀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을 건설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후천선경은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道義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 한도에 돌아닿는대로 새기틀이 열리듯이 후천선경도 상제께서 짜 놓으신 천지공사라고 하는 도수에 맞추어 실현된다.

개벽장이신 상제께서는 혼란하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세상을 열고 천지인 삼계를 안정시키는 천지개벽을 시행하셨다. 선경세계가 전개되면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지고 전쟁과 기아, 질병, 상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겁과 재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강세하신 상제께서는 민생을 긍휼히 여기사 광제창생의 기치를 내걸고 광구천하 함으로써 민심과 속정을 살피셨고 또 광제창생할 수 있는 천지공사를 처결하셨다.

기존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막연히 올 것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상제께서 현재의 세상을 천지공사라는 행위를 통해 바꾸어 완성된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진경세상의 다양한 모습들과 변화들은 전경에 나타난 상제님의 예시와 함께 그것을 사회, 문명, 과학, 정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생활상

후천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의식주에서부터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는 것이고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

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케 하신다는 상제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처럼 못 먹고 못 입는 궁핍한 삶이 아니라 의식주 모든 것이 풍부하여 생활을 경영함에 아무런 불편이 없음을 의미한다. 도인들의 생활상에 대해 전경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30]

그리고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게 된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고 한다. 많이 살아봐야 150세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음으로써 육신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老化라고 하는데 오늘날 알려진 노화의 메카니즘으로 세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생존에 따른 생리적(生理的)인 과정에서 생명활동의 일부를 지연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예컨데 물질대사(物質代謝) 과정에서 본래 개별적으로 활동해야 할 단백분자가 결합하여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설이 그것이다.

둘째는 정상적인 화학적 변화 도중 우연히 모순이 발생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좋지않은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견해이다. 유전자의 변화나 효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생길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이론의 가정도 가능한 일이다.

셋째는 단백질 합성을 관장하고 있는 유전자의 합성반응에 관해 단백질 구성에 착오가 발생해서 그 변질된 분자가 그후의 단백합성에 영향을 주면 그 결과 효율이 좋지 않은 단백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이다.[31]

그러나 아직까지 노화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

30) 공사 1장 31절
31) 콘라드 H 워딩톤, 이원식 역, 미래의 인류사회, 한마음사, 1982, p 166.

야 노화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의학계에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종교인들은 그들 종교의 창시자들이 예언한 대로 불로불사, 무병장수, 영생, 장생과 같은 용어를 써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萬國醫院을 설치하여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공사를 보셨다. 노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재생케 하는 법방을 내 놓으셨으니 바로 만국의원과 의통이다. 앞으로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므로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醫統을 잘 알아두라고 당부하셨다. 醫統으로써 죽은 자를 살릴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후천의 궁극적 삶은 닦은 대로 수명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덕이 높으면 정혼이 굳게 뭉쳐 흩어지지 않아 늙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영과 육이 일체로써 장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언어의 통일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 때에는 만국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고 또 언어도 장차 통일하게 된다.

언어는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의 전달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게 되고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어는 지형, 문화, 정치, 전통, 교류 등의 작용결과에 따라 고립되기도 하고 통일되기도 하며 또 사용인구의 증감, 지리적 고립, 사회-직업적 고립, 사용인구 집단들의 공존, 혼혈, 정보전파 등에 의해서 변화되고 분화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구상에는 오늘날 2,796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중국어와 같이 그 사용인구가 10억이 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태평양의 도서에서와 같이 수백인이 사용하는 언어에까지 각 언어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오늘날 사용인구 천만 이상의 언어는 50여개라고 알려져 있다. 세계의 주요 어족으로는 인도-유럽, 중국-티벳, 드라비다, 셈-햄, 우랄-알타이,

오스트로네시아, 그리고 니제르-콩고-반투의 7대 어족을 든다.

언어의 차이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이념의 차이를 가져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작용을 한다. 또 언어의 전파를 통해 민족간에 주종관계를 야기시키고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지니게도 한다.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이 황국화 정책의 방편으로 학교교육에서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을 시킨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제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가 되며 만국언어가 통일되는 시대가 온다.

3. 남녀의 평등

법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존엄성의 원칙에서 비추어 보면 남녀간에는 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라는 조건하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에 관한 유엔선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가정,사회의 복지와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데 필요한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만인은 평등함을 오늘날 법규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여성을 억압하는 결혼, 가족, 사랑, 매음, 성교 등의 수단으써 여자는 남자의 노리개감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된 억압의 벽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생긴 후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았고 역할이 중시되었지만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발전된 부계사회에서는 남성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하여 성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가했다.

더 이상 여성이 성, 가정, 사회, 정치, 경제에서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에 의해 여성해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의 상품화는 방송매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 정치적 활동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멕시코에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면서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권리, 기회, 책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라는 원칙이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만 한다."와 같은 여성을 위한 권력을 얻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주의주장이 실제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스스로 통제와 억압 그리고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여성해방론자들이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고정관념과 가부장제 사회의 모든 틀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의식있는 남성과 여성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남녀가 동등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을지라도 고정관념과 제도를 혁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상제께서는 나약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공사를 통해 여성에게도 기운을 붙이셨다. 이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성별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고 규모가 큰 경제활동은 남성의 전유물이어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구조로 보았을 때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역할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로써 여성에게도 가부장적인 발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홀아비만 재혼이 허용된 사회에서 열부(烈婦)이어야 했던 여자의 운명도 개가(改嫁)를 통해 바꿀 수 있게 했다. 후천에서는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공사를 처결하셨다.[32]

수행 생활에서도 남녀평등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람을 쓸 때는 남녀

32) 공사 2장 17절

노약을 구별하지 않은 까닭으로 여인도 닦은 바에 따라 공덕이 서게 되니 후천에는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지리라."[33]고 하셔서 선천에서의 남존여비는 없어지고 후천에는 정음정양의 도수에 따라 부부간에 동등한 역할이 주어지고 도통군자에 여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명의 고도화와 종교통일

고차원적인 도술문명이 열리면서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고 인간의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를 통달하게 된다. 현대의 문명이 천국의 모형을 본받아 지상에 구현되었듯이 이제껏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들보다 고등화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이룩될 것이다. 신과 인간이 조화(調化)하고 서로 도우며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된다.

또한 상제께서는 모든 道通神과 文明神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셨다. 종교가 각 문화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각종교의 宗長을 교체하여 문화통일을 도모하였다.

만약 종교의 통일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족속들이 각기 다른 생활경험의 전승으로 특수한 사상을 지어내어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 후천문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 종장은 석가모니에서 震默으로 하였고 仙道의 종장으로는 老子에서 崔水雲으로 儒道의 종장은 공자에서 주회암으로 정했으며 서도의 종장은 예수에서 이마두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종교 통합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학신자는 최수운의 更生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再臨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른다[34]는 말씀에서처럼 문화의 精髓를 뽑으시고 각 종교의 종장을 임명하신 분에 의하여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

33) 교법 1장 68절
34) 예시 79

5. 과학기술의 발달

후천에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종자를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녹색혁명이 일어나 지구상에 산재해 있는 굶주린 자를 구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종자를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 추수하게 됨으로써 신품종의 개발로 인해 단위면적당 최대의 수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또 땅을 가꾸지 않고도 옥토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비료의 과다사용과 화학적인 살충제, 제초제의 과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나 중금속 오염화를 막는 첩경이 될 수 있다.

토지의 오염은 작물의 오염으로 연결된다.

이는 다시 작물의 표피에 부착된 오염원과 작물 체내의 잔류오염으로 나뉘어지는데 표피의 부착 오염은 농약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작물의 겉에 묻은 농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잔류오염이다. 농약이 작물의 뿌리를 통해 잎이나 줄기 심지어 종자에까지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축이 먹던 인간이 먹던 생태계의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게 그 독성이 축적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한편, 토지의 비옥화는 식량의 증산을 가져와 1인당 식량공급량이 증가하여 식량난 해결에 청신호가 된다.

또 교통의 발달로 기차와 윤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달포가 걸렸다느니 하는 말을 좀처럼 적용하기가 힘들다. 기차나 버스라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볼때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비행기로는 불과 몇 십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지표나 지형, 지물 그리고 공간관념이 많이 변화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일일 생활권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관념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이제는 '금방', '금새'라는 개념으로 통한다. 지금은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행성에의 접근과 같은 빛의 속도 이상의 최첨단 비행체가 있어서 만리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통신의 발달도 눈여겨 볼 만하다. 휴대폰 하나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위성휴대폰(GMPCS)가 나와 「지구촌 휴대폰시대」라는 또한 번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수백개의 위성을 통해 지구 전체를 단일 무선망으로 구성해 땅, 바다, 하늘 어디에서나 지구 반대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사막, 밀림, 도서벽지등 오지에서도 24시간 전파를 보낼 수 있다.

6. 정치의 안정

정치행위의 기본은 인간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이다. 소수의 집단이나 권력자가 다수의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정치형태인데 권위있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망있는 정치가는 자기가 처해있는 사회환경을 잘 알아야 하고 국민의 염원을 알아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결한 인품을 지녀야 한다.

인품 속에는 그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정치가의 성격에 따라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정치집단이 주변에 형성된다. 정치지도자의 인품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감화를 받게 된다.

2)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책임자로서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한

다. 만약 그것을 가로막는 저항세력이나 장애가 있다면 살신성인의 마음과 용기와 강직성을 지녀야 한다.

3)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관용과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4) 청렴결백해야 한다.

과거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주변사람을 포진시키고 정권유지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력을 끌어들였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재집권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깨끗하지 못한 정치는 민심이 떠나 결국 정치단상에서 물러나게 되고 장기집권한 지도자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청렴결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권력과 금권력 그리고 재집권욕이 사라져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앞으로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어야 한다.

化權이 열림으로써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로써 다스리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제도나 법률의 구성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어느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그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고루한 사고에서 벗어나 누구나 국가 행정을 운용하는 주인이 될 수 있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간섭할 수 있는 기구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이념인 것이다. 이제 상제께서는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 버리셨다. 그러므로 권력을 몇몇 소수가 공유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백의군왕(白衣君王)도수에 따라 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후천에서는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자주주의(自主主義)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서 먹고 살것이라는 예시에서 보듯이 도덕군자와 같은 분들이 나와서 덕으로 정사를 돌본다.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여 군사위(軍師位)가 일체로써 다스려지며 우주 조화정부가 건설되어 천하가 한 집안이 된다. 후천 정치인들은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며 절대적 권력을 동반한 악이 존재할 수 없고 탐욕으로써 백성의 삶을 유린하는 어리석음도 행하지 않게 된다. 후천에는 정치지도자라기보다 도덕지도자의 출현이 예견된다.

7. 경제의 균등

세계의 경제는 불균등하다. 세계의 무역체제는 비록 무역자유화를 기초로 주장하지만 사실 블록을 통한 자유화이고 지역 이외의 무역에 대하여는 폐쇄적인 대외 공통관세로 인한 무역차별주의가 나타났다. 국가간에도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역조현상으로 인한 경제력 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대국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소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독점 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모순은 독점 자본 사이의 이해대립을 낳고, 자국의 독점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독점자본과 노동자, 농민, 중소자본 사이의 이해대립을 초래한다. 더욱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자본과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과의 이해대립으로도 나타난다.

현대 자본주의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독점자본과 비독점계급, 독점자본주의 국가와 비독점자본주의국가, 독점자본주의 강대국과 사회주의 강대국이 경제적 이해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함으로써 독점 자본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35]

35) 坂本和一외 지음,김승태 역,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 백산서당, 1985, p. 170.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이 만들어 낸 모순으로 국제통화위기, 재정위기, 정치적 불안정, 하이퍼인플레이션, 자원위기, 환경파괴, 세계 동시 스태그플레이션, 개발도상국의 거액 누적채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나라별로 볼 때 여러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선진그룹이라고 일컫는 G7을 포함한 선진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창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는 개발도상국이 있고 기술이나 자본이 열악한 경제후진국이 있다.

빈부의 불균등은 소속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예컨데 경제적으로 풍족한 국가나 국민의 경우에는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교통 전반에 걸쳐 많은 혜택과 수준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국가나 국민들은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고통과 시름을 겪게 된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재연되고 있는 식량이나 의료기구와 같은 최저 생계에 필요한 요소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백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국가별로 부국과 빈국이 있는 것처럼 개개인에게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이라도 빈민층이 있고 또 가난한 나라라도 개인은 부유한 삶을 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사람 따로 있고 손에 물 안묻히고 이득을 보는데서 오는 빈곤한 사람들의 소외감. 이 모든 것이 빈부의 차별로 인한 상극적 요소들이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상제께서는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빈부의 차별을 없애셨다. 이후로는 국제 경제 질서와 개개인들의 경제력이 재편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선천에는 돈이 눈이 어두워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후로는 그 눈을 밝혀 참된 자를 따르게 된다. 재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나 탐욕적인 사람보다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누리게 하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식록을 풍부하게하여 행복한 경제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다.

8. 한국의 미래상

과거 주변국들의 침략만 받아 오던 무명의 약소민족이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진리에 따라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동방의 빛이 다시 비춰진다고 했고 앞으로 동

양에서 인의정치가 구현된다고 서양사람들은 예견하고 있다. 과거 공자가 「동방예의지국」이라 명명한 것처럼 이 나라는 군자의 나라임이 틀림 없다.

상제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률 등 모든 면에서 발달할 것이며 희망 찰 것이라고 예시하셨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천자국(天子國)이 되고 그 징표로서 천자국에만 오는 시두손님이라는 대신명이 공사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지신명을 가장 잘 받들었으므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신명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을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서양 신명을 불러 들였으며 "법이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경수(京洙)의 집에 수명소(壽命所)를 경학(京學)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京元)의 집에 복록소(福祿所)를 정하셨다.

그리고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에서 보듯이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남쪽 조선에서 나온다고 풀이 할 수 있다. 남조선 배의 도사공(都沙工)은 동학혁명의 주창자인 전봉준이 맡았으며 그 배에 탄 사람이 도덕군자가 배를 몰게 된다.[36]

조선명부(朝鮮冥府)로 임명된 전명숙은 사명기가 없어 한을 맺었었다. 상제께서는 피노리 이 화춘(李化春)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넉장을 청홍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였다.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侍天呪)를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앞에 세워 깃대와 같이 했다.[37] 그 사명기를 세움으로써 무명의 농민 반란군이 아니라 천주(天主)를 섬기는 사람으로써 해원하게 되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관군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청일 양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자는 그의 의기(義氣)가 남조선의 도

36) 예시 50절
37) 공사 3장 2절

사공이 되어 그 깃발을 드날리게 된 것이다.

상제께서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하리라.」[38] 하셨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의 강대국들이 격전을 벌이는 형국으로 국제정세가 전개될 것이며 결국은 주인인 우리나라가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한반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가들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 경찰이라 자부하는 미국은 소련세력 확장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미국'을 지향하는 보수적 정권의 출현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정치, 군사, 경제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과도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은 북한의 호전성을 견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련에 대한 원거리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기 위해 지금은 북미, 한중, 중일, 중미, 북일, 한일, 한소의 상호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련은 중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소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모든 조약이 말소된 중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을 허용하였고

38) 예시 28절

한국과 우호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도 과거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개혁 정책을 도모하면서 남한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활발한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모델인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중국의 성장에 필요했고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도 긴밀한 협력과계를 맺었다. 과거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인들이 남경에서 일본군에게 집단 학살을 당한 경험을 했지만 실용주의자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일본과 손을 잡았다. 중국, 미국, 일본의 각국 원수가 상호교환방문을 하는 등 삼각협력을 구축했고 이것은 국력신장과 소련견제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등소평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과도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을 협의한 상태이고 평화증진과 긴장완화 및 제거에 양국이 협의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양국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와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배한 이래 미국의 보호막 속에서 경제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 G7과 같은 선진그룹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분야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엔 상임이사국진출이나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본은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 한반도의 긴장환화가 자국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소련의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제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등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제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탈아시아」정책을 제고하고 있다.

이윤을 앞세우는 경제관계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구축이 그들의 경제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한 긴장과 대립체제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과거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긴장이 이제 해빙무드를 타고 개방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각국을 대접하는 시대를 지나 주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는 조선신명이 서양에 건너가 역사를 일으킬때에는 외인들이 주인없는 빈집 드나 들듯 했지만 이제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 집의 일을 다시 주장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금산사에서 종도들에게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명월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개화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운통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39]라고 하셨다. 남조선에서 만국을 살릴 계책에 나오는 것이니 이는 도통군자가 의통으로서 만인의 생명을 살리고 또 앞선 문명으로써 만국사람을 교화하고 이끌어갈 지도자의 나라가 됨을 나타낸다.

9. 세계의 평화실현

인간은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평화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비롯하여 군소 사회단체들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정치 집단을 형성하면서 전쟁과 함께 안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써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갈등과 적대관계의 해소, 상호 이해를 근거로 하는 화해와 공존관계 형성, 비폭력 불평등의 해소,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소외와 빈곤의 극복, 자연보호에까지 광범위한 노력들을 포함한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겪은 세계 대전은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안정에 회의를 가져다 주었고 이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의 모색으로서 전쟁과 평화, 국제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핵전쟁과 같은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부족, 민족, 인종간의 전쟁 억지력은 무엇인가에서부터

39) 예시 14절

자원, 식수, 식량,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의 공동개발과 분배, 산업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유전공학을 이용한 식량증산, 지역간의 분쟁해결, 기상정보의 교류와 같은 적극적 평화를 위해 협의기구가 창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전쟁을 회피하고 폭력의 내재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행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처럼 전 인류가 불안속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관심은 범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지구촌이라 불릴만큼 좁아진 오늘날, 국제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국제간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 외교정책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나 문화교류와 같은 행사를 통한 상대방 알기 운동을 펴야 한다. 미국과 중공이 핑퐁외교를 통해 가까워졌었고 남북한도 친선도모를 위해 축구단일팀 구성을 했거나 예술단 교환방문을 통해 긴장을 해소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 전세계적인 평화의 구현은 단순히 전쟁의 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상호 이해하고 화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상적, 철학적 지혜가 마련되어야 한다.

칸트는 1795년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철학과 평화문제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40]

칸트에 있어서 평화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는 당위적인 문제였다. 왕이나 관리들이 철학자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평화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사고로써 평화문제를 결정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인간이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이나 국가를 동지적, 동료적관계로서 받아들이는 제도가 확립될 때에 보장될 수 있는 이성적 상태라고 칸트는 생각하였다. 그는 또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의 체제와 통치를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어떤 국가든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 때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40) I. Kant, Zum ewigen Frieden, Philosophische Bibliothek Felix Mainer, 제 47권 (Hamburg,1973), p 149.

이러한 주장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신뢰를 형성하여 공멸을 피하자는 데 있다. 最高善의 실현을 위한 永久平和는 도덕의 완성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평화는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의 도덕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萬人의 투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에 법의 이성과 도덕적 정신으로써 영구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구촌이 분쟁으로 인한 더 이상 전쟁의 화약냄새를 피워서는 안된다. 흑과 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적이고도 관용적인 방향으로 인류의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야말로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지역간의 단합, 민족간의 유대강화,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여 함께 사는 인류공영을 구현할 수 있다. 오늘을 사는 인류가 핵무기의 개발이나 화학탄, 생물탄,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과 같은 인명살상용 무기의 개발과 같은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공존공생하는 해원상생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화평해지는 일은 자명하다. 상제께서는 원수의 원을 풀고 은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고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41]고 하셨다.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 불기가 커져서 세계민생에게 큰 화를 끼칠까 염려하여 화둔(火遁)을 쓰셨고 변산같은 큰 불덩이로 세계가 타버릴까하여 최창조의 집에서 매화공사(埋火公事)를 보셨다.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라고 하셨다.[42]

41) 공사 1장 25절
42) 교법 3장 40절

Ⅵ. 맺 음 말

지금은 상극으로 점철된 선천세계를 벗어나 상생으로 가득찬 후천선경의 세계로 들어서는 때이다. 후천선경은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나 희망적인 것이 아니다. 제 한도에 돌아닿는대로 새로운 도수에 의해 새 기틀이 열리듯이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처결하시어 후천의 무궁한 선경을 건설하려는 의지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천지공사에 의해 나타나는 세계를 도에서는 지상낙원, 도통진경, 후천선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세계는 신인이 상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윤리도덕이 완성된 세계이다. 인간은 도를 닦아 도통을 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를 통달하고 세상에는 수화풍 삼재가 없어진다. 인간의 생활도 윤택해져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온다.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며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짓는다.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져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당혜를 신게 된다.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로 다스릴 것이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 후천에는 빈부의 차별, 남녀의 차별도 없고 통어(通語)가 되며 마음대로 왕래하고 모든 것을 뜻한대로 이룰수 있다.

후천세계의 주역이 될 세상사람들은 장차 열릴 새세상의 일을 믿어야 한다. 상제께서 9년동안 행하신 일을 천지에 확증하신 바 있고 종도들을 통해 새세상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세계를 위해 성경신을 바쳐 이루라고 하셨다. 체계질서의 확립 이후에는 탕자의 일에서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仙學에 뜻을 두어야 하며 10년 머슴살이의 이야기에서 처럼 盡心竭力의 정성을 드려야 하고 류훈장이 최풍헌을 끝까지 믿었고 따랐듯이 한 마음을 정했으면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백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

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여야」[43]한다. 後天仙境은 한마음으로써 믿고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大巡思想學術院 Institute of Daesoon Thoughts DAEJIN SINCE 1996

43) 대순진리회 요람 17쪽